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s of Teacher Efficacy on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The Mediated Effect of Teacher-Infant Relationships

윤정민¹ 이주연²

Jeong Min Yun¹ Joo Yeon Lee²

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ed effect of teacher-infant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Methods: A total of 137 child care teachers that lived in Gwangju and Jeollanam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answer two survey questionnaires for two inf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infant relationship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two sub-factors (prosocial behavior and day work adjustment) of adjustment in child care centers. Unlikely as it was, several sub-factors such as positive emotion, peer adaptation, and self-strength were fully mediated by teacher-infant relationships.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eacher-infant relationships with teacher efficacy in order to improve infants' adaptation to daycare. In addition,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influence factor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the child care adjustment.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제1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

2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e-mail : idscot@jnu.ac.kr)

key words teacher efficacy, teacher-infant relationship,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mediation effect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에 따라 과거에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맡아오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대신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졌고,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및 대체를 위한 필요는 기관보육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강경화, 2013). 사회변화에 발맞춰 국가에서도 보육료 지원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2017)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에 1,451,215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이중에 절반이 넘는 약 60% 정도가 영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이며 8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도 22.9%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6). 이는 영아들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교사 및 또래와 함께함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부모들의 인식 및 양육관 변화, 국가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 및 이용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들은 익숙한 가정환경과 부모를 떠나서 어린 시기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개별보육이 아닌 단체보육이라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양육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요구한다. 영아기는 출생 후 자기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타인 및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하는 시기로, 긍정적인 환경적응을 위해서는 주양육자와의 신뢰감 및 애착형성이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정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어린 영아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며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영아기 동안 잦은 양육환경의 변화는 영아의 애착형성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Tran & Weinraub, 2006) 이는 이후 사회관계에 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Anan & Barnett, 1999; Dykas & Cassidy, 2011)의 보고는 영아기의 안정된 양육과 환경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영아의 적응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린이집의 적응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인적 환경인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하루일과 및 교실규칙 등의 요소 파악을 통한 원활한 생활 등 포괄적인 수준에서 접근한다(박영아, 엄서영, 2012). 따라서 어린이집 적응 과정이 영아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지만 안정적으로 적응한다면 이후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자체에 대해서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정은혜, 2001). 또한, 안정적인 적응을 이룬 영아는 활발하게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친사회성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까지 형성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김현주, 고경필, 2015; 장은미, 2008). 단현국(2004)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잘 대처하며, 또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양육자와 떨어져 맞닥뜨리게 되는 낯선 환경에 영아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린 영아들의 경우가 그러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초기 시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고한다(임명희, 2008; 최정선, 정가운, 2013). 새로운 환경에서 영아들은 실제로 주의산만, 과잉 행동, 회피 행동을 하거나 교사 및 또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의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적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각할 경우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양숙경, 2010; 이명주, 2011; 이영, 김명순, 1999; 장은미, 2008; 오종은, 2001). 뿐만 아니라 영아의 어린이집 부적응은 이후 학교생활 및 성장과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박정화,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처럼 어린이집 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크게 부모, 영아, 교사, 기관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미옥, 2015; 김민정, 2017; 김선희, 2012; 김영실, 2014, 김유환, 2015).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양육스트레스, 취업여부가 있으며, 영아 변인으로는 기질과 성, 정서조절능력, 애착안정성, 재원경험, 연령, 놀이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이나 환경구성, 학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 프로그램들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은 영아의 기질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지만 최근 연구들은 교사와 관련된 교사-영아 상호작용, 지도방법, 민감성, 교사 신념 및 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변인에 주목하고 있다. 영아는 유아와 달리 자기표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교사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교사변인의 영향에 따라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교사-학생보다는 부모-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애착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서동미, 김경란, 2009). 김윤숙과 조희숙(2011)의 연구 역시 영아의 적응은 애착 대상을 전이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 영아는 부모와 형성한 애착을 교사-영아간의 애착으로 전이시키므로 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의 지도방법, 민감성, 기질, 신념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 중 교사효능감은 특히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이해된다(김미옥, 2015). 교사효능감이란 교사 자신의 교수행동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그 정도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 및 대하는 태도, 적응을 돕는 방법 등 교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명희, 2011).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맡은 반 영아들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이진숙, 2004), 영아들 간의 상호작용도 연령 및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문제행동 역시 적게 나타났다(이정미, 2007). 김명희(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아들의 수월한 적응을 도우며, 김영희(2007) 또한 높은 교사효능감은 유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경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영아들 역시 활동참여에 소극적인 태도와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2004; 장종윤, 2010; 전인옥, 1999).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내적 신념으로서의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그러나 교사의 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수는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교사효능감과 영아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소수의 기존 연구들도 두 변인 간의 직접

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을 뿐, 교사효능감이 어떻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교사효능감이라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타인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효능감과 같은 내적 신념이 다른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신념이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Bowman, 1995; Bredekamp & Copple, 1997). Ashton과 Webb(1986) 또한 교사의 신념이 교수 행동을 통해 결국 아동의 신념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실제 연구들에서도 높은 교사효능감은 교사로서 하여금 영아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거나(김명희, 2011), 친밀하고 따뜻한 교사-유아 관계를 쉽게 형성하도록 촉진한다고 보고한다(김영희, 2007).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강미숙, 2016; 장종윤, 2010; 천현정, 2010). 따라서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변인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교사의 행동변인 중 특히 교사-영아 관계는 교사효능감이라는 교사의 내적 신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변인이라는 점에서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적응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영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영유아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한다. Pianta (1994)에 의하면,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자신의 감정, 신념, 행동 등의 근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교사-유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Howes과 Hamilton(1993) 또한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 관계가 이후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 (1969)의 애착 이론을 통해 어머니-영아 애착과 교사-영아 애착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교사와 영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교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은 영유아가 더 높은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또래 간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영유아는 교사와 맺은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어머니와 분리된 상황에서 겪는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때로는 부모와 맺은 불안정 애착에 대한 보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와 신뢰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배미연, 이순복, 2014). 실제로,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교사-영아 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가 영유아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영유아의 적응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즉, 교사-영유아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질 때, 어린이집 적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선희, 2012; 김유환, 2011; 나현주, 2017).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영아들에게 민감하고 친밀하게 대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사-영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교사-영아 관계는 영아로 하여금 안정감을 형성하게 하고 활발한 탐색과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영아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김명희, 2011; 이진숙, 2004), 혹은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배미연, 이순복,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Birch & Ladd, 1997)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이들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김영희(2007)의 경우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그 대상이 유아였으며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도 매개가 아닌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경로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관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영아의 적응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강경화, 2013; 김민정, 2017; 김연화, 2012; 박향미, 2015; 임민영, 2016; 유혜선, 2014)은 적응의 하위요인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의 적응이 학업준비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유아의 적응과는 구별됨을 명확히 하며 더불어 기관 적응에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어린이집 적응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문제.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연령의 학급이 시작되는 3월부터 만 1세 또는 만 2세의 영아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영아들의 초기적응을 경험한 교사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각 담임교사 당 2명의 영아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영아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영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영아 기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교사 기준 132명, 영아 기준 26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64)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교사 연령		교사 경력	
20대	44(16.7)	2년 이하	72(27.3)
30대	84(31.8)	2년 초과 ~ 5년 이하	80(30.3)
40대	118(44.7)	5년 초과 ~ 10년 이하	60(22.7)
50대	18(6.8)	10년 초과	44(16.7)
교사 학력		기관 유형	
보육교사교육원	20(7.6)	보육교사교육원	20(7.6)
2, 3년제 전문대	116(43.9)	2, 3년제 전문대	116(43.9)
4년제 대학	122(46.2)	4년제 대학	122(46.2)
대학원	2(0.8)	대학원	2(0.8)
기타	2(0.8)	기타	2(0.8)
영아 성		영아 재원기간	
남아	123(46.6)	6개월 이하	89(33.7)
여아	138(52.3)	6개월 초과 ~ 1년 이하	56(21.2)
		1년 초과 ~ 2년 이하	84(31.8)
		2년 초과	19(7.2)

* 결측응답에 따라 각 변인별 응답 총 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교사가 보고하였다.

1) 교사효능감 척도

교사효능감은 Enochs와 Riggs(1990)가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 STEBI)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이분려(1998)가 번역하고, 이를 장종윤(2010)이 영아 교사용으로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과학교과에 대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나 문항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을 연구한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순자, 김진화, 2017; 황해익, 2013; 홍계옥, 강혜원, 2011)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도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 척도는 일반적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12문항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13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

항들이 2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에서는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문항 3번)을 발견하여 이를 삭제하고 총 24문항으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영아를 지도하는 행위에 대한 효능감인 일반적 교사효능감은 ‘영아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교사의 노력 때문이다’, ‘영아가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교사의 교수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뛰어난 교수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영아에게는 동기유발을 시킬 수 없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반면,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경우 ‘나는 영아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한다’, ‘나는 영아의 질문을 잘 받아주고 격려한다’, ‘나는 영아가 어려움을 나타낼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당황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는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평정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역 채점 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고, 합산 점수가 낮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 교사-영아 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사-영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ianta(2001)의 영아-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임민영(2016)의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과 문항 수는 친밀성 11문항, 갈등성 12문항, 의존성 5문항이며,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밀성은 교사가 영아에게 애정과 따뜻함을 표현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나는 아이와 애정있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갈등성은 교사와 아동이 서로 대립하며, 교사는 영아가 화가 난 상태이거나 예측이 어렵다고 느끼며, 교사가 감정적인 소모를 겪고 영아에 대하여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나는 서로를 항상 힘들게 한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의존성은 영아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아이는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는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측정은 교사에 의한 평정으로 이루어졌다.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평정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갈등성, 의존성 세 가지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교사-영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원척도에서 역채점 문항으로 제시한 하위요인별 문항 점수의 변환을 먼저 수행한 후, 갈등성과 의존성은 다시 역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친밀감과의 방향성을 맞추어 합산하였다. 따라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영아와의 관계를 원활하고 친밀하게 느끼며 영아가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3) 어린이집 적응 척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 & Kostelnik(1993)가 개발하고, 오종은(2001)이 번안한 유아교육기관적응 질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김민정(2017)이 영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은 5가지로,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간 적응, 자아강도, 하루일과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영아가 또래 관계와 또래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장난감 등을 나누어 쓴다.’는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긍정적 감정은 영아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밝고 활기차다’를 들 수 있다. 또래 간 적응은 영아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상황에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가 진행 중인 활동에 건설적으로 개입한다’는 문항이 포함된다. 자아강도는 영아가 독립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주도적으로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등의 인내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일과 적응은 영아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물리적, 인적 환경에 포괄적으로 적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문항의 예로는 ‘하루 일과를 이해함을 알 수 있다.’가 있다.

본 척도의 총 문항 수는 30문항으로 친사회적 행동 4문항, 긍정적 감정 7문항, 또래 간 적응 6문항, 자아강도 4문항, 하루일과 적응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평정한다. 적응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적응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친사회적 행동 .73, 긍정적 감정 .81, 또래 간 적응 .80, 자아강도 .85, 하루일과적응 .76이었다.

3.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측정하는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실제 설문조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IRB NO.1040198-170419-HR-036-02)을 받은 뒤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7년 5월 17일에 광주지역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어려움 없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원장님과의 사전 약속을 하고 어린이집에 방문했다. 약속된 날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인 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교사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뒤, 개별적인 공간에서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총 150명의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약 90%인 139명으로부터 278부의 응답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거한 응답자료 중 264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어린이집 적응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별 점수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은 어린이집 적응 전체점수와 $r = .22(p < .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과는 $r = .17(p < .01)$, 긍정적 감정과는 $r = .19(p < .01)$, 또래 간 적응과는 $r = .13(p < .05)$, 자아강도와는 $r = .16(p < .05)$, 하루일과적응과는 $r = .20(p < .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영아관계는 어린이집 적응과 이 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어린이집 적응 전체 점수와는 $r = .62(p < .001)$,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과는 $r = .27(p < .001)$, 긍정적 감정과는 $r = .65(p < .001)$, 또래 간 적응과는 $r = .40(p < .001)$, 자아강도와는 $r = .35(p < .001)$, 하루일과적응과는 $r = .62(p < .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관계 간에는 $r = .16(p < .01)$ 의 낮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2>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3-1	3-2	3-3	3-4
1. 교사효능감	1.00						
2. 교사-영아관계	.16**	1.00					
3. 어린이집 적응	.22***	.62***	1.00				
3-1 친사회적 행동	.17**	.27***	.72***	1.00			
3-2 긍정적 감정	.19**	.65***	.89***	.55***	1.00		
3-3 또래 간 적응	.13*	.40***	.80***	.63***	.69***	1.00	
3-4 자아강도	.16*	.35***	.58***	.25***	.41***	.23***	1.00
3-5 하루일과적응	.20**	.62***	.86***	.48***	.71***	.52***	.45***

* $p < .05$, ** $p < .01$, *** $p < .001$.

2. 교사효능감과 어린이집 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수인 교사-영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인 교사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교사효능감과 매개변수인 교사-영아 관계를 함께 투입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판단기준에 의해 완전매개와 부분매개효과의 경향을 파악한 후, Sobel test의 값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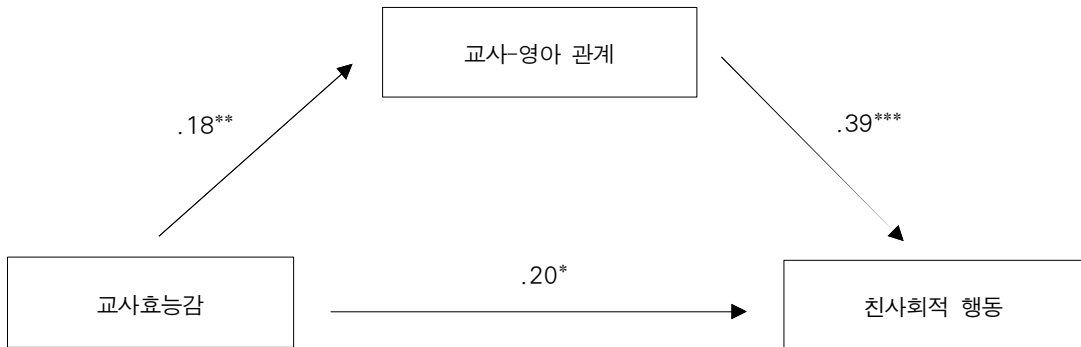
1)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교사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N = 26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교사효능감 → 교사-영아관계	.18**	.03	7.24**	
2단계	교사효능감 → 친사회적 행동	.27**	.03	7.27**	2.31*
3단계	교사효능감 → 친사회적 행동 교사-영아관계 → 친사회적 행동	.20* .39***	.09	12.8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교사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인인 교사-영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8, p < .01$), 2단계에서 역시 독립변인인 교사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7, p < .001$). 교사-영아 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설명력은 각각 3%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20, p < .05$), 교사-영아 관계도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 p < .001$). 이들 두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9%였다. 그리고 이 때,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beta = .27 \rightarrow \beta = .20$)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영아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2.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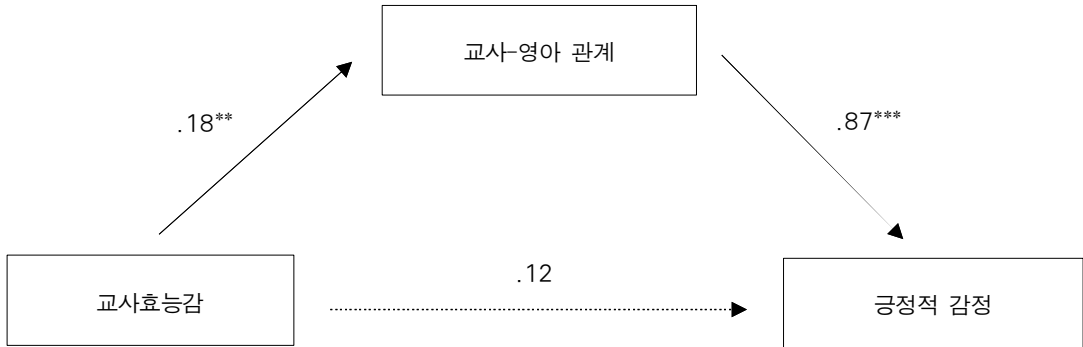
2)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긍정적 감정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표 4>는 교사효능감이 영아 적응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때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 교사효능감과 긍정적 감정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N = 26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교사효능감 → 교사-영아관계	.18**	.03	7.24**	
2단계	교사효능감 → 긍정적 감정	.27**	.03	9.25**	2.71**
3단계	교사효능감 → 긍정적 감정 교사-영아 관계 → 긍정적 감정	.12 .87***	.42	95.13***	

** $p < .01$, *** $p < .001$.



(그림 2) 교사효능감과 긍정적 감정의 관계에서 교사-영어 관계의 매개효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교사효능감은 교사-영어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p < .01$). 3단계에서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어 관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두 변인은 긍정적 감정에 대해 42%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매개변인인 교사-영어 관계는 긍정적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beta = .87, p < .001$)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인인 교사-영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교사-영어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긍정적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수행한 Sobel 검정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2.71, p < .01$).

즉, 교사효능감은 영아의 적응 중 긍정적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교사-영어 관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닌 효능감 자체보다는, 높은 교사효능감을 바탕으로 교사와 영아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뜻한다.

3)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또래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영어 관계의 매개효과

교사효능감과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영어 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과 같다. 교사효능감은 매개변인인 교사-영어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 = .18, p < .01, R^2 = .03$), 종속변인인 또래 간 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2, p < .05, R^2 = .02$). 마지막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어 관계를 또래 간 적응에 함께 투입하였을 때 17%의 설명력을 보였고, 교사-영어 관계는 또래 간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만($\beta = .39, p < .001$) 교사효능감이 또래 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영어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또래 간 적응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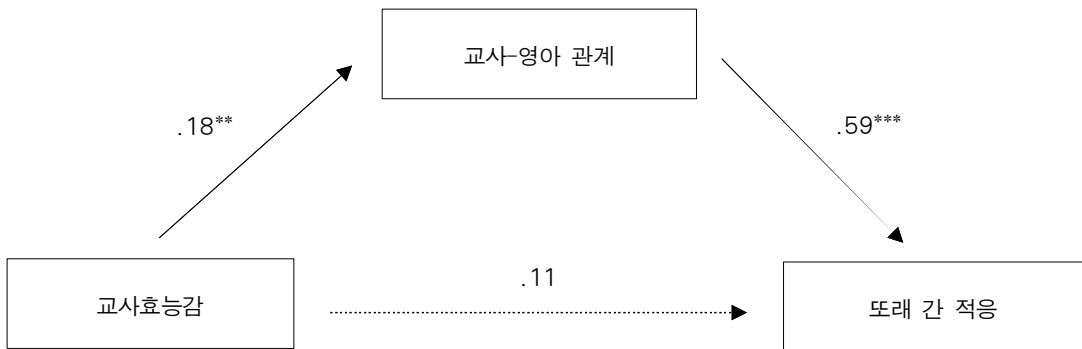
회귀분석 2번째 단계와 3번째 단계의 두 β 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Sobel test의 값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2.56, p < .05$).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중 또래 간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교사효능감과 또래 간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N = 26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교사효능감 → 교사-영아관계	.18**	.03	7.24**	
2단계	교사효능감 → 또래 간 적응	.22*	.02	4.69*	2.56*
3단계	교사효능감 → 또래 간 적응	.11			
	교사-영아 관계 → 또래 간 적응	.59***	.17	26.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교사효능감과 또래 간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4)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자아강도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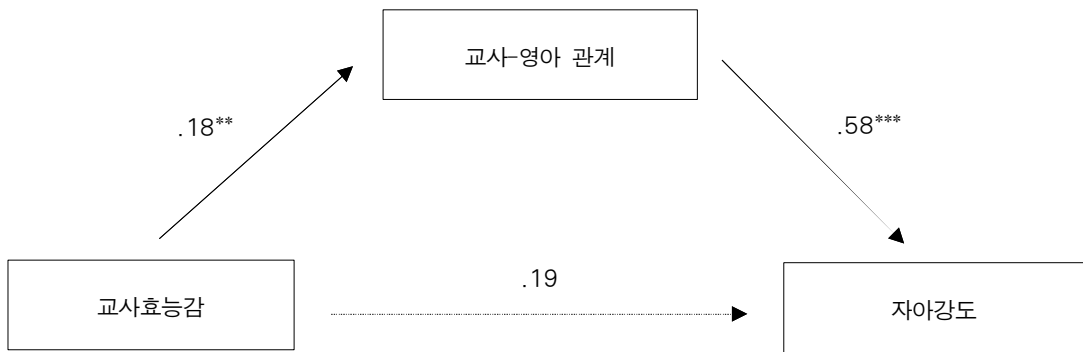
교사-영아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자아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의 1단계에서는 앞선 결과와 같이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18, p < .01$) 3%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2단계에서 교사효능감은 자아강도 분산의 3%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9, p < .01$).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교사-영아 관계는 자아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8, p < .001$). 그리고 이때의 설명력은 13%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영아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자아강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음을 의미한다.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도 2.49($p < .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이 자아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경로를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교사효능감과 자아강도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N = 26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교사효능감 → 교사-영아관계	.18**	.03	7.24**	
2단계	교사효능감 → 자아강도	.29*	.03	6.61*	2.49*
3단계	교사효능감 → 자아강도	.19	.13	19.87***	
	교사-영아 관계 → 자아강도	.5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교사효능감과 자아강도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5)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하루일과 간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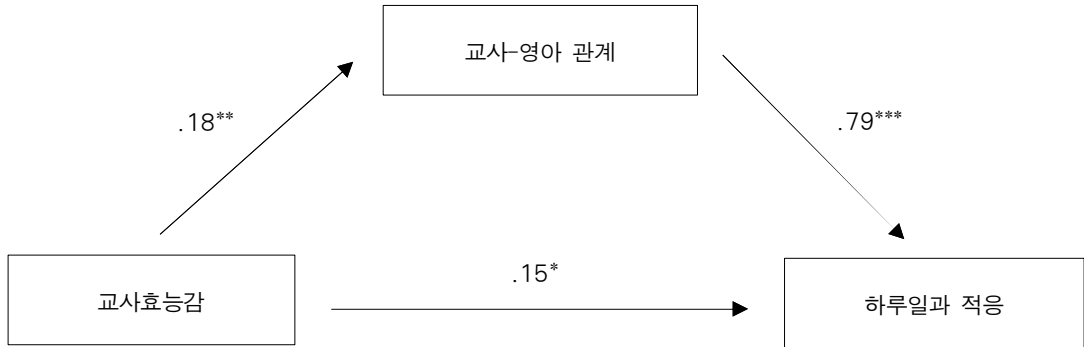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인 하루일과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효능감의 경우 앞선 회귀분석의 결과와 같이 교사-영아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고($\beta = .18, p < .01$), 교사효능감이 하루일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beta = .29, p < .01$).

〈표 7〉 교사효능감과 하루일과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N = 26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교사효능감 → 교사-영아관계	.18**	.03	7.24**	
2단계	교사효능감 → 하루일과 적응	.29**	.04	11.18**	2.70**
3단계	교사효능감 → 하루일과 적응	.15*	.39	83.46***	
	교사-영아관계 → 하루일과 적응	.7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교사효능감과 하루일과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교사효능감이 각각의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3%와 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3단계에서 하루일과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영아 관계를 함께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9%로 증가하여 교사-영아 관계가 영향력이 높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 때 교사효능감은 하루일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 단계($\beta = .29$)에서 보다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beta = .15, p < .05$). 교사-영아 관계는 하루일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79, p < .001$), 교사-영아 관계가 교사효능감과 어린이집 적응 중 하루일과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역시 Z값이 2.70($p < .01$)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하루일과 적응에 직접 효과를 미치면서도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효과 또한 갖는다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하루일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영아가 더 쉽게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사-영아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긍정적 교사-영아 관계는 다시 영아의 하루일과 적응을 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 중 교사효능감에 주목하였다.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변인들 간의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적응 점수는 교사효능감 및 교사-영아 관계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볼 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전체 및 하위요인들은 교사효능감과

.13~.20 정도의 상관을 보인 반면, 교사-영아 관계와는 .27~.62의 높은 상관을 보여 교사-영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교사효능감 및 교사-영아관계는 궁극적으로 영아의 바람직한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김명희, 2011; 배미연, 이순복, 2014; 이진숙, 2004; Birch & Ladd, 1997)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높은 교사효능감이 긍정적인 교사-영아 관계를 촉진(김영희, 2007)하고 영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강미숙, 2016; 장중윤,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관계, 그리고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 관계의 유의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보여주듯이 각 변인들 간의 밀접한 상관을 의미함과 동시에 세 개 변인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즉, 교사효능감 및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과 각각 상관을 보임과 동시에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관계의 두 변인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세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매개경로에 의한 구조적 특성을 보일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인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영아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영아 관계는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먼저 다가가서 친근함을 보이는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교사효능감과 긍정적인 교사-영아 관계가 모두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Ashton(1984)의 보고에 근거해볼 때,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 교사들을 대하거나 영아들을 대할 때에 더욱 애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영아가 그러한 교사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모방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영아의 행동을 더욱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한다(노수진, 이경남, 2015). 따라서 영아 개인의 친사회적 특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교사-영아관계는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긍정적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긍정적인 감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에게 교사는 부모를 대신한 양육대리자이기 때문에 어린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즐겁고 편안한 곳이라 느끼며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와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교사가 영아와 안아주기, 문지르기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접촉, 개별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아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며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보고된다(이지애, 2013). 홍은숙(2013)의 연구에서도 영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가 많고 있는 반의 영아들이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정되고 즐거운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영아교사의 높은 효능감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영아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는 교사-영아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교사효능감과 또래 간 적응의 관계에서도 교사-영아 관계가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 교사

효능감이 또래 간 적응에 대해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연화(2012)의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유능성 역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영아들의 또래 간 적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이 어린 영아들의 경우 비슷한 또래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교사, 부모와 같은 성인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 익숙하므로 또래 간의 관계 맺기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Finkelstein, Dent, Gallacher, & Ramey, 1978). 따라서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관만으로는 영아의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영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Russon, Waite, & Rochester, 1990). 이에 영아교사의 높은 교사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영아의 또래 간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교사-영아 간 관계에서 또래적응 본모기를 보이거나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이나 지도를 통해 영아의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 중 자아강도 요인의 경우, 교사효능감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매개 경로의 간접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익숙한 공간에서 친숙한 주 양육자들과 지내오던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면 처음으로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 영아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익숙한 가정환경에서는 스스로 놀이도 잘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주눅 든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영아에게 주요한 환경이 된다(구수연, 2005; 김미옥, 2015). 따라서 영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하여 자아강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지 및 격려를 통해 갈등과 의존성을 낮추어 주는 등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영아가 어린이집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설명된다.

다섯째,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하루일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은 영아의 하루일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면서, 동시에 교사-영아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향미(2015)의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생활하는 영아들이 교사의 영향으로 하루일과 적응이 더 쉽게 이루어졌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활동을 하며, 보육시설의 환경 또한 영아의 발달 상황에 맞춰 구성하므로(박향미, 2015) 영아가 쉽게 하루일과를 수행하면서 안정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 자신에 대한 높은 효능감은 교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천현정, 2010) 따뜻하고 친밀한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아가 어린이집의 물리적, 인적환경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에 있어,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사효능감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교사-영아 관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 교사-영아 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세 변인 간 경로의 구조적 메카니즘을 밝혔다. 즉, 교사효능감이라는 교사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타인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라는 발달적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교사-영아 관계라는 유기체들 간의 관계적 특성이 매개변인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교사-영아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먼저,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등을 실시할 때 영유아 교수법, 상호작용 방법,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 교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내용은 물론 교사로서의 역할이나 직업적 가치, 소명감, 자존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사효능감의 개념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효능감은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보육교사라는 직업자체의 중요성, 가치를 교사가 인식하여 자신감과 소명감을 갖게 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 개인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실제적인 교수법 및 상호작용 훈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대해 연구한 이세나와 이영석(2005)은 교사들이 보육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기관에 반영될 때 교사효능감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지닌 효능감의 중요성과 이러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 교사참여 및 의사반영의 기회가 다양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하위요인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교사-영아 관계는 교사효능감과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갖는데,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과 하루일과 적응의 경우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긍정적 감정과 또래 간 적응 및 자아강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구상할 때에는 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하루일과 적응을 어려워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 감정과 또래 간 적응 및 자아강도의 경우는 그 보다는 교사-영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영아 개개인이 적응의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하고 그게 알맞은 차별화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교사-영아 관계의 높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과정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모든 분석결과에서 교사-영아 관계가 교사효능

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효능감과 같은 내적 신념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지만,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행동인 교사-영아 관계가 적응에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영아는 유아에 비하여 교사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많은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와 영아가 맺는 실제적인 관계의 질이 영아의 적응에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영아 간의 실제적인 관계 행동에 더욱 초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지역을 확대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세 개의 주요 변인 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변인에 대해서만 하위요인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사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을 나누어서 연구한 경우가 많았지만 본 연구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뜻하는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실제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평가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교수효능감을 정의하였기에 하위요인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이를 더욱 확장하여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관계에 대한 하위 요인별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영아 관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설문을 모두 교사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시각과 실제 영아가 적응 시에 겪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영아를 관찰하거나, 부모를 통해 적응에 관한 정보를 함께 얻어 교사응답 자료와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영아들 중에서도 만 1세, 만 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등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 0세를 위한 적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서도 발달 수준이 매우 다르므로 만 0세, 만 1세, 만 2세로 나누어서 각 연령에 따른 적응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교사효능감이나 교사-영아 관계와 같은 환경적 변인 이외에 영아의 연령, 성, 기질 등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아기는 발달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이므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이해할 때 연령에 따른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아들의 적응에 대해 새 학기가 시작하지 약 3개월 된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아들은 학기 초인 3월, 4월에는 어린이집 적응에 특히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응을 측정하는 시기를 다양화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직접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교사효능감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두 변인을 매개하는 교사-영아 관계 변인을 밝힘으로서 이들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영아의 적응을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기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화 (2013). 부모-영아 애착, 부모-교사 협력, 그리고 교사-영아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숙 (2016). 교사효능감과 보육신념이 교사-영아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201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 효능감, 훈육방식과 유아의 적응간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옥 (2015). 영아반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영아 초기적응간 관계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7). 교사민감성과 교사-어머니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12).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교사-유아 관계와 유치원 적응 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2012).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실 (2014).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7).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 (2011). 어머니-교사관계가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환 (2015).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운숙, 조희숙 (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121-146. doi:10.18023/kjece.2011.31.6.006
- 김현주, 고경필 (201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223-231. doi:10.5762/KAIS.2015.16.1.223

- 나현주 (2017). 어머니-교사 관계와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수진, 이경남 (2015). 영아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92-113.
- 단현국 (2004).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함수풀이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pp. 3-13). 충북: 한국교원대학교출판.
- 박영아, 엄서영 (2012).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0**, 33-53.
- 박정화 (201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영아-어머니, 영아-교사 관계 탐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미 (2015). 영아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연, 이순복 (2014).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에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39-360.
-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서동미, 김경란 (2009). 2세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와 이에 대한 또래와 교사의 반응.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59-85.
- 양숙경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경, 문혁준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31-146.
- 오중은 (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선 (2014). 영아의 기질과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 (2011).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분려 (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나, 이영석 (2005).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6), 45-58.
- 이순자, 김진화 (2017).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49-73. doi:10.22155/JFECE.24.2.49.73
- 이영, 김명순 (1999).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교사 또래관계 및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 학회지, 37(8), 103-115.

- 이정미 (2007). 발달에 적합한 실재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애 (2013).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및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2004).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보육시설 적응간의 관련성. **열린교육연구, 12(2), 217-235.**
- 임명희 (2008). 초기적응과정에 대한 영아 사례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73-103.**
- 임민영 (2016).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미 (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육아지원연구, 3(2), 33-50.**
- 장종윤 (2010).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 (1999).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22, 493-528.**
- 정은혜 (2001).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현정 (201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선, 정가운 (2013). 12~14개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관찰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80-101.**
- 황해익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57-180.**
- 홍계옥, 강혜원 (2011). 예비유아교사의 의사결정성과 자아존중감 및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14, 5-17.**
- 홍은숙 (2013).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서 교사의 민감성과 민감성 인식 및 영아의 적응행동.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an, R. M., & Barnett, D. (1999). Perceived social support mediates between prior attachment and subsequent adjustment: A study of urban African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1210-1222.* doi:10.1037/0012-1649.35.5.1210
- Ashton, P. T.(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doi:10.1177/002248718403500507
- Ashton, P. T., & Webb, R. B.(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 Psychology*, 51(6), 1173- 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doi:10.1016/S0022-4405(96)00029-5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man, B. T.(1995). The professional developmental challenge: Supporting young children and families. *Young Children*, 51(1), 30-34.
- Bredenkamp, S., & Copple, C.(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 Washington D.C: NAEYC.
- Dykas, M. J., & Cassidy, J. (2011). Attachment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across the life span: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37(1), 19-46. doi:10.1037/a0021367
- Enochs, L. G., & Riggs, I. M. (1990, April).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Presented at the 63rd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Atlanta, US.
- Finkelstein, N. W., Dent, C., Gallacher, K., & Ramey, C. T. (1978). Social behavior of infants and toddlers in a day-care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4(3), 257-262. doi:10.1037/0012-1649.14.3.257
- Howes, C., & Hamilton, C. E.(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15-32. doi:10.1016/S0885-2006(05)80096-1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J.(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doi:10.1016/S0885-2006(05)80097-3
- Pianta, R. C.(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doi:10.1016/0022-4405(94)90026-4
- Pianta, R. C.(2001). *STRS: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rofessional manual*. NY: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usson, A. E., Waite, B. E., & Rochester, M. J. (1990). Direct caregiver intervention in infant peer social encount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428-439. doi:10.1037/h0079157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doi:10.2307/270723
- Tran, H., & Weinraub, M. (2006). Child care effects in context: Quality, stability, and multiplicity in nonmaternal child care arrangements during the first 15 month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566-582. doi:10.1037/0012-1649.42.3.566

논문투고: 17.12.15
수정원고접수: 18.01.22
최종게재결정: 18.02.12